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

신선임
숭실대학교

현은정*
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합에 따라 분류된 군집들이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변인인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군집분석한 결과 총 4집단으로 구분되었다. 군집 1은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진로확신-효능감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은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수행불안은 다소 높았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선택불안-낮은 효능감 집단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의사결정혼란은 평균보다 다소 높았고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 높은 진로혼란-효능감 집단이었다. 군집 4는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은 평균보다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 낮은 진로혼란-낮은 효능감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집단별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군집 1이 가장 높았으며, 군집 2, 3, 4 순으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상담실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역기능적 진로사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군집분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은정,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학생회관 5층, Tel: 02-880-5639, Email: isis84@snu.ac.kr

서 론

한국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해 청년고용률은 장기간 하락세를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중장년 고용률보다 낮아(김민우, 2015)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삼포세대(三抛世代,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를 넘어 오포세대(五抛世代, 삼포 세대에 인간관계, 내집 마련을 포기했다는 뜻이 더해져 만들어진 용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졸업과 동시에 낙담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사회진출에 대한 두려움은 졸업을 유예하고(이준범, 2015) 사회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늦추므로 Super의 진로발달 단계 가운데 탐색기 후기와 확립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실제로 진로결정은 다른 일반적인 의사결정보다 좀 더 복잡하여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할 수 있으며(Sampson, Peterson, Lenz, Reardon, & Saunders, 1996a), 이러한 이유로 진로결정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있어 왔다. 이 가운데 인지적 접근은 부정정서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Garnefski & Kraaij, 2006),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인지 재구조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의 학습이 강조되어 왔다(Mitchell & Krumboltz, 1987). 특히, 일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인지적 접근은 개인의 감정이나 행동이 상황 자체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즉 인지(사고,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듯이, 진로상담에서의 인지적 접근도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나 행동이 진로정보처리, 진로의사결정 과정 및 진로행동 등에서 재해석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로와 인지적 요인의 관계 연구들(Betz, 1992; Brown & Brooks, 1990; Spokane, 1991)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이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강조되어 왔다(Brown & Brooks, 1990).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을 정보처리의 과정으로 보고, 인지를 진로발달에 적용한 것이다(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특히,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과 같은 진로문제는 일반적인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과 서로 유사하기도 하지만 직업세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과정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에,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 관련 연구들은 인지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능력이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고(Brown & Brooks, 1990) 인지적 측면을 진로정보 처리(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와 진로발달 및 진로의사결정(Lusting & Strauser, 2002) 등의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dysfunctional career thoughts)와 진로관련 효능감 변인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이경희, 2001; Hackett & Watkins, 1995). 진로결정에서 역기능적 사고는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on: 이하 CIP) 이론과 인지치료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인지를 역기능적 진로사고로 개념화(Sampson, Peterson, Lenz, & Reardon, 1992)한 것으로,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이하 CTI)가 개발되었다(Sampson et al., 1996a). 그 결과, 진로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진로결정과 직업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담자의 인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특히,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로미결정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 Gilhousen, 1981; Nevo, 1987).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인지인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회피하게 하고, 진로미결정, 무력감이나 우울을 증가시키고 흥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 활동을 방해한다(Corbishley & Yost, 1989; Lewis & Gilhousen, 1981).

앞서 언급하였듯이, 진로결정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정서는 진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집중과 기억을 방해하는데(Sampson et al., 1996a) 역기능적 사고는 부정정서를 야기하고 이는 또다시 역기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의 과정을 만든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역기능적 인지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자각하고 인지적 재구성을 통해 역기능적 사고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김수리, 이재창, 2007; Sampson et al., 1996a). 더욱이, 역기능적 사고는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해 진로의사결정을 회피하게 만들고(Dowd, 1995) 내담자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해하고 흥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면접과 같은 진로준비를 방해하기 때문에(Corbishley & Yost, 1989) 내담자의 혼란과 미결정을 증가시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쳤다(이재창 외, 2002; Lusting & Strauser, 2002; Saunders, Peterson, Sampson, & Reardon, 2000).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 관련 연구 가운데 고교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이재창 외, 2002)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 확신성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미결정과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변인인 의사결정혼란은 진로미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국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Saunders et al., 2000), Kleiman 외(2004)도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진로결정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전공선택 무능력(Kilk, 1997), 완벽주의와 진로에 대한 우유부단함(Osborn, 1998; Saunders, 1997), 상태 분노(Strausberger, 1998), 자아정체감(Voight, 1999)과 관련이 있었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결정과정에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탐색하여 그 원인을 찾아 효과적인 결정과 기능적 진로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었다.

한편, 진로결정의 인지적 변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변인인 진로관련 효능감,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이경희, 2001; Hackett & Watkins, 199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Hackett & Betz, 1981). 선행연구들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취, 진로결정, 진로관리와 같은 진로결정 관련 변인들과 깊은 관련이 있고(Hackett & Betz, 1981; Taylor & Betz, 1983) 국내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 진로준비행동, 진로적응, 진로미결정 등과 관련이 있으며(김수지, 이정자, 2013; 정미예, 2007;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태도성숙의 약 40%를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요인(이기학, 이학주, 2000)임을 밝힌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설명하면서, 효능감을 형성하는 원천으로 자신의 과거 수행 성취, 다른 사람들의 행동 관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언어적 격려,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는 감정의 경험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가정환경이나 문화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언어적 지지 유무가 자기효능감 형성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Kush & Cochran, 1993; 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Lent, Brown과 Hackett(1996)도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발달 기회는 청소년의 환경 내에 있는 중요한 성인들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Lapan, Hinkelman, Adams와 Turner(1999)도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효능감 정보의 제공자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기능적 사고의 외적갈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모의 지지 유무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국내 연구들(김수리, 2005; 김수리, 이재창, 2007)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고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낮은 청소년들이 좀 더 나은 준비행동과 진로태도성숙을 이루고 있었고, 김선우(2006)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하위요인 간 의미 있는 부적상관이 있었음을 꾸준히 언급되어 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외적통제소재, 미결정, 불안과 우울, 흥미저하 등을 야기하고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Corbishley & Yost, 1989; Lewis & Gilhousen, 1981; Peterson et al, 1991)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볼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성과를 비교 분석한 이종찬(2013)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는데,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유사한 인지, 심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진로준비행동이나 진로탐색 행동과 같은 행동변인 연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인지 변인 가운데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련성보다는 이들이 각각 진로결정이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 두 변인이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들은 드물다.

진로결정에서 중요한 인지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연구들은 주로 진로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된 한편,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이나 유형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차별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간간히 있어왔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축을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김봉환, 1997;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손은령, 김연중, 2010; 조애리, 1999) 최근에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경험을 군집분석하여 이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를 살펴본 연구(고내숙, 유금란, 2014)가 있으나 진로관련 인지변인의 분류는 찾아보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인지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변인을 바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집단의 유형을 구분하고, 연구자가 중요하게 관심을 갖는 개념을 동시에 반영하여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panierman, Poteat, Beer, & Armstrong, 2006). 특히, 군집분석은 연구대상에서 실제 어떠한 군집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김정화 외, 2012) 관련 변인 간의 하위유형과 개인에게 파악되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므로 차별화된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군집분석하여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고 각 변인에 따른 군집별 차이를 확인하고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을 이해하므로 진로상담에서 내담자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하위유형은 몇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가?
- 연구문제 2.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은 각 변인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은 진로결정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A 대학에서 2011년 1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진로관련 교양과목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대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5부를 제외한 총 29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는 남학생 170명(57.4%), 여학생 126명(42.6%)이었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46명(15.5%), 2학년 87명(29.4%), 3학년 76명(25.7%), 4학년 87명(29.4%)이었다. 연령은 평균 21.42세이고, 표준편차는 2.35이다.

측정도구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 CDMSES)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50문항 중에서 Betz와 Vuyten(1997)이 25문항으로 단축한 CDMSES-SF를 이은경(2000)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88이었고,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목표선택 .81, 직업정보 .73, 문제해결 .71, 미래계획 .69로 나타났다.

진로사고 척도(Career Thought Inventory: CTI)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인지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1996b)가 개발하고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2003)이 번안한 진로사고검사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인 진로사고가 높음을 의미한다. 진로사고검사는 총 48문항으로, 의사결정혼란(14문항), 수행불안(10문항), 외적갈등(5문항)의 세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혼란 척도는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척도로, 그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 명확성이 부족하고, 문제에 압도당해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기 어려우며, 문제해결과정에서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된다(문항 예: 나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수가 없을 것이다). 수행불안

척도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불안으로 인한 무능력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진로 미결정을 지속시키게 된다.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등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문항 예: 알아봐야할 직업은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추려내는 일은 나에게 너무 어렵다). 외적갈등 척도는 중요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간의 균형 조절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외적갈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과 자신이 만족하는 일간에 적절한 균형을 지키는 데서의 혼란을 느낀다(문항 예: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93이었으며,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의사결정혼란 .90, 수행불안 .79, 외적갈등 .6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87)가 개발하고, 고향자(1992)가 변안한 진로결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된 진로미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문항 중 미결정 척도 3~18번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Wards 방법을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군집의 수를 정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생성된 군집변인들의 각 군집별 평균 점수를 초기 중심점(seed point)로 투입하여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각 군집이 진로결정수준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하였고, Bonferroni 검정으로 사후 검증하였다.

결 과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연구변인인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의 평균

과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의사결정혼란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60,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수준($r=-.66, p<.01$)과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수행불안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37,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수준($r=-.62, p<.01$)과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외적갈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r=-.25, p<.01$)와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진로결정수준($r=-.48,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r=.44, p<.01$)과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나타났다.

<표 1> 측정 변인의 상관관계

	CTL_의사결정혼란	CTL_수행불안	CTL_외적갈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CTL_의사결정혼란	1				
CTL_수행불안	.58**	1			
CTL_외적갈등	.44**	.39**	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60**	-.37**	-.25**	1	
진로결정수준	-.66**	-.62**	-.48**	.44**	1
M	12.52	17.43	5.21	82.04	44.68
SD	7.61	5.34	2.98	12.79	8.01

** $p < .01$

군집분석 결과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인지변인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이 자연발생적으로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계층적 군집분석과 K-means 군집분석을 이용하는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집 수의 범위를 정한 후 가장 적합한 군집 개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다(허명희, 양경숙, 2007).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Wards 방법과 제곱 유클라디안 거리를 사용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덴드로그램을 살펴 본 결과 2~5개의 군집 수가 제안되었다. 군집분석에서는 가장 최적의 군집 개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으며, 연구자가 데이터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군집 수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용준, 김영화, 2007). 본 연구에서는 2단계에서 비계층적 군집분석인 K-means를 실시할 때, 군집 수를 2~5개로 투입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산출하였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특징이 각 군집별로

가장 이질적이고 배타적으로 드러난 것을 최종 군집 개수로 정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적절한 군집 수는 4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종 군집 분류 결과, 군집 1은 63명(21.3%), 군집 2는 94명(31.8%), 군집 3은 71명(24.0%), 군집 4는 68명(23.0%)으로 나타났다.

<표 2> 군집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군집 1 M(SD)	군집 2 M(SD)	군집 3 M(SD)	군집 4 M(SD)	F	Bonferroni
CTL_의사결정혼란	3.92 (3.41)	11.19 (4.16)	12.89 (3.90)	21.96 (6.48)	170.91**	4>3,2>1
CTL_수행불안	10.16 (3.90)	17.54 (3.12)	20.34 (3.23)	20.96 (3.87)	128.38**	4,3>2>1
CTL_외적갈등	2.63 (1.94)	3.67 (1.73)	7.83 (1.85)	7.00 (2.81)	102.58**	3,4>2>1
진로결정자기효능감	93.46 (10.29)	81.45 (7.86)	86.68 (9.18)	67.46 (9.28)	98.39**	1>3>2>4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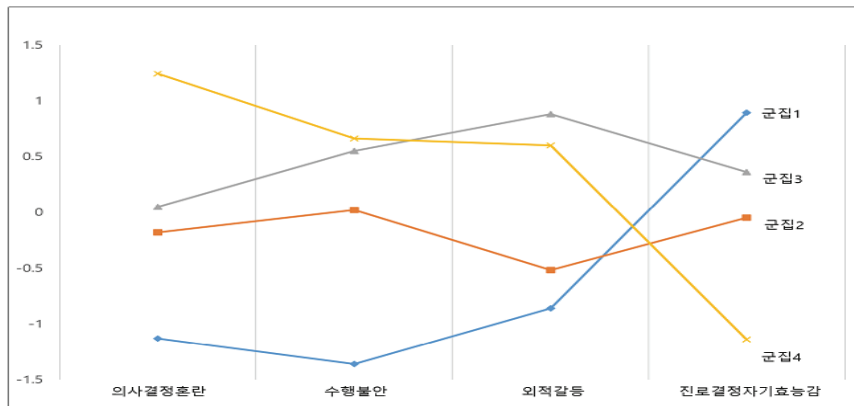
군집 수가 결정이 되면, 군집들을 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각각의 군집변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각 군집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군집 간 변수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군집이 잘 분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결정혼란은 군집 4가 가장 높았고, 군집 1이 가장 낮았다. 수행불안은 군집 4가 가장 높았고, 군집 1이 가장 낮았다. 외적갈등은 군집 3이 가장 높았고, 군집 1이 가장 낮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군집 1이 가장 높았고, 군집 4가 가장 낮았다.

각 군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군집명을 정하기 위해 각 군집별 군집 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표 3과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군집 1은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점수가 모두 다른 집단에 비해 낮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시작하고 선택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없고, 주변의 타인의 의견과 자신이 만족하는 일 간에 적절한 균형을 지키면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여러 과제를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집단으로 예상되어 '진로확신-효능감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의 수준이 평균보다 낮지만, 다소 높은 수행불안의 수준과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평균보다 다소 낮았다. 이들은 의사결정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중요 타인의 의견에 힘들어함이 크지 않으나,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 진로 결정을 어려워하면서 동시에 진로결정에 필요한 여러 과업을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은 다

소 낮은 집단으로 예상되어 '선택불안-낮은 효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약간 낮은 의사결정혼란 수준과 함께 수행불안, 외적갈등이 평균보다 높았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 집단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는 것 자체에 대한 다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위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 결정을 못하면서, 진로결정에 필요한 과업에서는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높은 특성이 예상되어 '진로혼란-효능감 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 4는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은 평균보다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반적인 진로결정 과정 수행이 어렵고 선택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동요하며, 진로결정에 필요한 여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은 모습이 예상되어 '진로혼란-낮은 효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표 3> 최종 군집별 표준화 점수

	군집 1 진로확신- 효능감 집단	군집 2 선택불안- 낮은 효능감 집단	군집 3 진로혼란- 효능감 집단	군집 4 진로혼란- 낮은 효능감 집단
CTL_의사결정혼란	-1.13	-0.18	0.05	1.24
CTL_수행불안	-1.36	0.02	0.55	0.66
CTL_외적갈등	-0.86	-0.52	0.88	0.60
진로결정자기효능감	0.89	-0.05	0.36	-1.14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수준이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집 별로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진로

결정수준은 군집 1이 가장 높았고, 군집 2, 3, 4 순이었다.

<표 4> 군집별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	Bonferroni
진로결정수준	53.08 (7.20)	45.22 (5.76)	42.39 (6.05)	38.53 (6.28)	62.70**	1>2>3>4

**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결정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여 어떻게 집단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각 변인에 따른 군집별 차이와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담실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각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부적상관을 나타낸 김수리와 이재창(2007)의 연구와 일치한 것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각 하위요인과 진로결정수준과도 유의미한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전체 및 하위척도와 진로미결정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인 이재창 외(200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던 김태석과 이기학(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상담하는 실무자와 기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단순히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기보다는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세 하위척도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군집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네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은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점수가 모두 평균보다 낮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높은 '진로확신-효능감 집단'이었고, 군집 2는 의사결정혼란과 외적갈등은 평균보다 낮고, 수행불안 수준은 다소 높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 다소 낮은 '선택불안-낮은 효능감 집단'이었다. 군집 3은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의 수준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평균보다 높은 '진로혼란-효능감 집단'으로 나타났고, 군집 4는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은 평균보다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낮은 '진로혼란-낮은 효능감 집단'이었다. 이 때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모두 군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군집 1과 군집 4의 경우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군집 2과 군집 3의 경우에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으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았던 고내숙과 유금란(20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군집 3의 경우 수행불안과 외적갈등이 평균보다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또한 뚜렷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때까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로 학업이라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였던 집단이다. 이 집단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학업적 효능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학업에서의 성공경험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학업적 효능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정적상관을 보인 선행연구(김홍석, 김정섭, 2015)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높은 학업적 성취경험이 높은 수행불안과 외적갈등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군집 3의 높은 수행불안은 다방면에서의 높은 흥미와 뛰어난 능력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Achter, Benbow, & Lubinski, 1997), 높은 외적갈등은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압력이 이들에게 비현실적인 두려움을 갖게 하여 실질적인 수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Leung, Conoley, & Scheel, 1994). 군집 3의 특징을 지닌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 기대로 인한 부담감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자신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 진로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결정수준이 군집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낮았던 군집 4의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수준이 낮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던 군집 1의 진로결정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높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군집 3은 군집 2보다 수행불안과 외적갈등은 높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에도 진로결정수준이 군집 2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내담자의 경우, 높은 외적갈등을 견디기 위해 애써야하므로 진로결정이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로결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외적갈등 요인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탐색된 내담자의 주요 인물들과 갈등 등을 자각할 수 있

도록 돕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에서 갈등요인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내담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보일 수 있어 심리내적 갈등요인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군집 3의 특성은 진로결정을 위한 준비, 계획, 실행, 평가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결정과정에서의 부담감과 주요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모습이 이들의 진로에 있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상담현장에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자신의 진로를 솔직하게 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의 내담자는 표면적인 진로결정수준은 높지만 실제로는 진로결정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결정한 진로에 대해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진로결정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 아닌 '최선'의 결정을 하고 결정의 주체가 내담자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를 들어, 선발인원 자체가 적고 경쟁률이 높은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대학생이 진로고민으로 상담실을 찾았을 경우, 상담자는 진로선택 유무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내담자가 평소 자신의 학습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했을 때는 외무고시 준비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고시를 준비하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자신의 진로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임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내담자의 표면적인 진로결정은 상당히 확고해 보이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내담자는 정말 그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그 분야로 취업이 좌절되었을 때의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이러한 내담자에게 사회적 지위가 어떤 의미인지 탐색하고 고위직을 원하는 내담자의 바람을 공감한 후, 자신의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위해 대안진로를 탐색하여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대학생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집단의 특성에 민감할 수 있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결과가 축적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적이 우수한 집단으로 집단의 특성상 자기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어 4년제 대학생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집단 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군집 3의 경우, 높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 높은 집단으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나 군집 3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에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한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집 3의 특성을 지닌 연구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거나 포커스 그룹 연구를 통해 집단의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관찰하므로 그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내숙, 유금란 (2014).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정서경험 군집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41-458.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우 (2015). 작년 취업자수 12년만에 ‘최다’ …청년실업률도 역대 ‘최고’.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1410382458278&outlink=1>에서 검색.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우 (2006). 성역할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수리, 이재창 (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수지, 이정자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0(1), 119-136.
- 김정화, 김미경, 김진경, 고은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2), 417-442.
- 김태석, 이기학 (2012).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3(4), 123-141.
- 김홍석, 김정섭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23-244.
- 박연복, 이규민, 강상진 (2011). 군집분석을 이용한 수준설정 방법과 타당성 연구. 교육평가연구, 24(3), 645-664.
- 손은령, 김연중 (2010).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이차원적 유형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1-20.
- 이경희 (2001). 진로신념검사(Career Beliefs Inventory)의 번안과 문항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은경 (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3). 진로사고검사의 한국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529-550.
- 이종찬 (2013).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취업진로연구**, 3(1), 49-66.
- 이준범 (2015). 졸업 유예 대학생 만 5천 여명...늦어지는 사회 진출. MBC NEWS.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today/article/3592734_14782.html에서 검색.
- 정미예 (2007). 대학생의 진로장애 지각, 진로신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발달의 구조적 분석.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애경, 김계현, 김동민 (2008). 진로미결정 및 관련변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9(2), 551-564.
- 조성연, 홍지영 (2010). 진로상담: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 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조애리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탐색행동과 성격 5요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용준, 김영화 (2007).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세분화 및 전략방향 제시: 특수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응용통계연구, 20(1), 23-38.
- 허명희, 양경숙 (2007). SPSS 다변량자료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Achter, J. A., Benbow, C. P., & Lubinski, D. (1997). Rethinking multipotentiality among the intellectually gifted: A critical review and recommendations. *Gifted Child Quarterly*, 41(1), 5-1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etz, N. E. (1992). Career assessment: A review of critical issues.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2nd ed., pp. 453-484). New York: Wiley.
- Betz, N. E., & Vo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2), 179-189.
- Brown, D., & Brooks, L. (1990).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Assessment and treatment of dysfunctional cognitions in career counseling.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5(3),

20-26.

- Dowd, E. T.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1), 1-20.
- Garnefski, N., & Kraaij, V. (2006).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depressive symptoms: A comparative study of five specific samp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8), 1659-1669.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ckett, G., & Watkins, C. E. Jr. (1995). Research in career assessment. In W. B. Walsh & S. H. Osipow(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2nd ed., pp.199-215). Mahwah, NJ: L. Erlbaum Associates.
- Hair, J. F., & Black, W. C.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lk, K. L. (1997). The relationship between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hoosing an academic maj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ern Colorado).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8(8), 3038A.
- Kleiman, T., Gati, I., Perterson, G., Sampson, J., Reardon, R., & Lenz, J. (2004). Dysfunctional thinking and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2(3), 312-331.
- Kush, K., & Cochran, L. (1993). Enhancing a sense of agency through career plan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34-439.
- Lapan, R. T., Hinkelman, J. M., Adams, A., & Turner, S. (1999). Understanding rural adolescents' interests, values, and efficacy expectation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6(2), 107-124.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6). Career development from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Brown, D., Brooks, L.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 development* (pp. 373-42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eung, S. A., Conoley, C. W., & Scheel, M. J. (1994). The career and educational aspirations of gifted high school students: A ret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3), 298-303.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5), 296-299.

- Lusting, D. C., & Strauser, D. R.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coherence and career thought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1(1), 2-11.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7). The effects of cognitive restructuring and decision making training on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4), 171-174.
- Nevo, O. (1987). Irrational expectations in career counseling and their confronting argum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3), 239-250.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Osborn, D. S. (1998).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career indecision.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9(10), 3746A.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rev. 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and services: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 Reardon, R. C. (1992). A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services: Translating concepts into practic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1(1), 67-72.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a). *Career thoughts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b). *Improving your career thoughts: A workbook for the career thoughts inventory*.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 E. (1997). The contribu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8(07), 3953B.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2), 288-298.
- Spanierman, S. B., Poteat, B. P., Beer, A. M., & Armstrong, P. I. (2006). Psychological costs

- of racism to whites: exploring patterns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34-441.
- Spokane, A. R. (1991). *Career interven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rausberger, S. J. (1998). The relationship of state-trait anger to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vocational identity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9(10), 3747A.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Voight, L. (1999). *Parental attachment and ego identity as antecedents of career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lusters according to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Sunim Shin
Soongsil University

Eunjeong Hye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of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lusters based on the scores of the dysfunctional career thought sub-variabl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21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four clusters were identified. The first group exhibited low level of decision making confusion, commitment anxiety and external conflict with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second group produced low decision making confusion, low external conflict and high commitment anxiety with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third group showed high level of decision making confusion, commitment anxiety and external conflict with high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last group had high level of decision making confusion, commitment anxiety and external conflict with low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ur groups significantly differ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first group showed the highest career decision level, followed by the second, the third and the last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together with som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dysfunctional career though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decision level, cluster analysis*

